사상체질학회지
J.of Sasang Const. Med
Vol. 6. No 1. 2002

太陰人 病證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考察

임진희*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Conceptions about Disease through Taeumin's Disease

Im Jin-ny*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find the change of Dong-mu's conceptions about constitutional diseas e through comparing with 『Sasang-Yihak-chobongue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Old e dition) and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In Edition)

2. Methods
Comparing with 『Sasang-Yihak-Chobongue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Old edition) and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In Edition), we found the change of Dong-mu's conceptio ns about constitutional disease

3. Result
1) In 『Sasang-Yihak-chobonguen』, diseases were classified 'Oi-Gam(外感)', 'Nae-sang(內傷)', 'Ok-roi(牢獄)', 'Wi-gyoung(危傾)',but herbal medication yet was't used by 'Oi-Gam(外感)', 'Nae-sang(內傷)', 'Ok-roi (牢獄)', 'Wi-gyoung(危傾)'. In 『Sasang-Yihak-chobonguen』 ordinary symptoms was more important than disease, and good life style was emphasized for health
2) I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Old edition), diseases were classified 'Oi-Gam(外感)', 'N ae-sang(內傷)'. diseases from exterior causes was classified into 'Oi-gam-noi-chu-byoung(外感腦佳頁病)',and diseases from interior causes was classified into 'Nae-sang-wi-wan-byoung(內觸胃脘病)'. Herbal medication yet was't used by Disease
3) In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In Edition), diseases was classified not by causes of di sease but by mechanism and symptom of disease, so into 'Exterior-cold disease' and 'Interior-hot disease'. Herbal medication was used by pattern of Disease.
4) Conception of constitutional diseases was gradualy complished through edition.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신저자:임진희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2-958-9233
E-mail) 740424jh@hanmail.net
** 한국한의학연구원

I. 緖 論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四象體質病證의 운영정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 저작부터 <東醫壽世保元>에 이르기까지 몇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완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敎子平生箴>과 <格致藁>등에서 그의 원론적인 질병치료정신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東醫壽世保元 甲午本> 등을 거쳐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의 체질병증 및 그 운영정신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1].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의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는 附錄一 朝鮮族民族醫金九翌先生手抄傳之 「四象醫學草本卷」과 附錄二 朝鮮族民族醫金九翌先生遺著 「四象醫學臨海指南」이라는 문헌을 실고 있다. 『朝醫學』의 前言에서 이 문헌에 대해 龍井縣中醫院 問診部 主任 孫永錫의 제공으로 延邊四象醫學의 先驅者인 金九翌先生手抄로 전하는 글을 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참고한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은 1984년 7월 28일 延邊朝鮮族民族醫藥研究會에서 영인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筆寫本[2]을 근간으로 『朝醫學』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활자화하여 발간한 것이다.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이 동무공의 저서인가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으나, 동무공의 저서로 보는 견해가 많고[3] 동무공의 초기 사고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동무공이 초기에 太陰人 病證을 인식한 방법을 알아보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동무공이 58세 때인 甲午年(1894년)까지 저술한 것으로, 최근에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하 '甲午本')은 동무공의 從曾孫인 李鎭鳳의 子 李聖洙翁이 소장해 오던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은 舊本 이후에 동무공이 庚子年까지 改草한 내용을 辛丑年에 그의 문도인 율동계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것이다.

太陰人 病證과 太陽人 病證은 동무공께서 <東醫壽世保元·醫原論>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장중경이 대략 그림자만 잡고 송원명의 의가들이 반정도 밝혀놓았다고 하였다. 즉 사상의학의 病證에서 少陽人과 少陰人의 病證은 기존의 의학에서도 많은 내용이 밝혀져 치료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太陰人과 太陽人의 病證과 치료 개념은 기존의 의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개념으로, 동무공이 새롭게 재정립한 病證 개념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동무공의 太陰人에 관한 體質病證 개념과 치료 개념이 草本卷에서부터 시작하여 甲午本, 辛丑本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太陰人 病證

동무공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으로)에서 인식한 病證 개념을 보면 素證에 대한 개념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病證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체질마다 보이는 평소의 증상이나 병에 걸리면서 주로 나타내는 증상을 중심으로 病의 輕重과 進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1) 宋一炳: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치료의학정신,사상체질의학회13-2, p.2, 사상체질의학회
2) 이 문헌은 慶熙大學敎 四象醫學科 宋一炳이 所藏하고 있는 1984년 影印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를 통해 비교 연구하였다.
3) 이수경:'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1-1

리고 草本卷에서는 질병의 발병과 치료에서 양생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甲午本과 辛丑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의 잘못된 생활 패턴은 네가지로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이며, 이로 인한 결과를 居處荒凉, 行身闇茸, 用心煩滿, 事務錯亂로 보았는데, 이러한 생활 패턴의 잘못이 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疲憊虛耗 荒凉之疾, 打撲損傷 闇茸之疾
積聚內癰 煩滿之疾, 癲癎狂病 錯亂之疾
咳嗽喘端 嬌奢之疾, 傷食傷暑 懶怠之疾
中風 偏急之疾, 眼病鼻塞 貪欲之疾.

즉 甲午本과 辛丑本에서도 양생을 강조하였으나 생활 패턴의 잘못으로 질병이 유발된다는 개념은 있으나 구체적인 예는 없었다. 그런데 草本卷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보아 양생에 관하여 강조한 양상을 볼 수 있다.

草本卷에서 동무공이 인식한 太陰人 病證의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內傷이든 外感이든 모두 肺를 손상시키고 肺의 손상이 정도에 따라 命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4]. 이를 통하여 보면 草本卷에서는 甲午本에까지 이어지는 臟腑의 標本에서 자신의 취약장기 강조의 양상이 草本卷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체질과 상관 없이 자신에게 脆弱한 장부의 손상 정도에 따라 건강의 정도를 8단계로 분류하고, 4단계는 건강한 부류, 4단계는 질병의 단계로 나누었다[5]. 질병의 4단계를 동무공은 '外感', '內傷', '牢獄', '危傾'로 분류하였다. 이 네가지의 질병 분류는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外感과 內傷은 발병의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 牢獄과 危傾은 질병의 輕重緩急에 따른 분류이다. 이를 보면 아직은 草本卷에서는 病證의 관한 개념은 아직 미완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방의 운용에서도 病證에 따른 처방의 운용이 아니라, 주요 증상에 따라 사용되는 처방이 제시되었다. 처방에서는 甲午本이나 辛丑本에서 제시되는 처방의 母處方을 찾기는 어렵다. 단지 淸心蓮子湯의 母處方으로 생각되는 처방이 있는데, 李[6]는 九味天門冬湯을 淸心蓮子湯의 母處方으로 보고 있다. 이로 辛丑本에는 처방만이 있고 운용예는 보이지 않는 淸心蓮子湯의 운용범위가 '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임을 알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甲午本에 나타난 太陰人 病證

甲午本에서의 太陰人 病證은 外感腦頸病과 內觸胃脘病으로 분류된다. 甲午本에서는 다른 판본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 나오는데, 表之表裏病과 裏之表裏病이다. 甲午本에서는 表裏의 부위와 標本의 개념에 충실하여 表에 해당하는 腦頸·背膂·腰脊·膀胱에서 발생한 病證이 表病이고, 裏에 해당하는 胃脘·胃·小腸·大腸에서 발생한 病證을 裏病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惡寒發熱長感病을 表之表病으로, 陽毒燥澁을 表之裏病으로,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을 裏之表病으로, 虛勞夢泄과 無腹痛中風을 裏之裏病으로 배속하였다. 각 병의 주요 증상과 증상에 사용된 처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B.2.1:"太陰人財權酒色凡百內傷外觸皆損肺, 故太陰人以肺臟剩削爲命脉長短."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B.2.3:"臟部一半命脉實數平分八截, 第一截名曰神仙, 度數言其最高也. 第二截名曰淸朗, 度數言精神淸朗也. 第三截名曰快輕, 度數言一身快輕也. 第四截名曰康寧. 度數言百體康寧也. 第五截名曰外感, 度數言表氣外虧也. 第六截名曰內傷[1], 度數言裏氣內損也. 第七截名曰牢獄, 度數言其病如入獄也. 第八截名曰危傾, 度數言其命遂危境, 命脉之理微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截著而明之, 使難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截亦各有初中終, 度數八截又可分爲二十四截."

6)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주요증상	처 방
表病 (外感腦佳頁病)	表之表病	頭痛, 身疼, 腰痛 등	▶麻黃發表湯
		長感病 (但惡寒不發熱不汗出)	▶葛根解肌湯+熊膽 ▶晝:桔梗生脈散 夜:葛根解肌湯 ▶升麻開腦湯
	表之裏病	目疼鼻乾增寒壯熱燥澁	▶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項類赤腫	▶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	▶桔梗生脈散
裏病 (內觸胃脘病)	裏之表病	腹痛自利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食滯痞滿腿脚無力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下痢膿血	▶桔梗生脈散+麝香 桔梗樗根皮丸
		腹脹浮腫	▶黃栗五味子膏
		有腹痛下痢中風	▶桔梗生脈散+麝香
	裏之裏病	無腹痛下痢中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夢泄病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龍骨

이상의 내용을 보면 辛丑本의 病證분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甲午本의 '表之裏病'의 내용을 보면 辛丑本의 '燥熱病'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甲午本의 '裏之表病'의 내용은 '胃脘寒證'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甲午本과 辛丑本의 表病과 裏病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는 表病에서 裏病으로, 다른 일부는 裏病에서 表病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넘어가면서 東武公의 病證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甲午本의 表病의 범주에서 表之表病과 表之裏病은 증상에서는 공통점이 없다. 단지 表之表病은 기존에 寒邪라는 외부의 邪氣에 의해, 表之裏病은 瘟疫이라는 외부의 邪氣에 의해 발생한 病證으로 인식되던 내용들이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甲午本의 表病은 外感을 원인으로 발생한 病證으로 '表病'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甲午本에서 주로 사용한 처방의 구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桔梗	黃芩	麥門冬	五味子	麻黃	杏仁	白果	山藥	黃栗	天門冬	酸棗仁	葛根	白芷	大黃	款冬花	升麻	樗根白皮	遠志	蓮子肉	柏子仁	龍眼肉	石菖蒲	甘菊花
麻黃發表湯	3	2	2	1	1	1	3																
桔梗生脈散	2	2	3	2			3	2	2														
升麻開腦湯	1	1	1	1	1	1				1	1	1	1	1	1	3							
葛根解肌湯	1	1				1					1	3	1	1		2							
黃栗樗根皮湯	3			1					10								1						
桔梗樗根皮丸	3																5						
黃栗五味子膏				30					100														
淸心山藥湯	1	1	1					3		1	1							2	1	1	1	1	0.5
淸心蓮子湯	1	1	2					1		1	1							1	3	1	1	1	0.5

이상의 처방 운용과 구성에서 보면 病證의 분류는 外感病과 內觸病으로 분류하나 처방의 운용에서의 外感病과 內觸病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고, 구성의 차이도 명확하지 않다.

3. 辛丑本에 나타난 太陰人 病證

辛丑本에서는 太陰人 病證을 胃脘受寒表寒病證과 肝受熱裏熱病證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病證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辛丑本으로 오면서 病證의 분류에서 表病·裏病과 寒證·熱證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太陰人의 경우 表病은 胃脘의 異常[7]으로, 裏病의 경우는 肝의 異常[8]으로 病證이 발생하였다.

우선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證'을 보면, 辛丑本에서는 表病을 크게 '背佳頁表病證 '과 '胃脘寒證'으로 분류하였다. 각 病證의 주요 증상과 처방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증상	처 방
表病	背佳頁表病證	頭痛身疼腰痛	麻黃發表湯
		惡寒不發熱	寒多熱少湯, 熊膽散
	胃脘寒證	食後痞滿 腿脚無力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泄瀉	太陰調胃湯 葛根蘿蔔子湯
		咳嗽	太陰調胃湯
		胸腹痛	麻黃定痛湯
		泄瀉十餘次 必發慢驚風	補肺元湯

다음으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證'을 보면, 辛丑本에서는 裏病을 크게 '燥熱證'과 '陰血耗竭證'으로 분류하였다. 각 病證의 주요 증상과 처방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증상	처 방
裏病	燥熱證	陽毒發斑	葛根解肌湯 黑奴丸
		肝熱熱證 溫病	皀角大黃湯 葛根承氣湯
		燥熱證 手指焦黑瘡瘡病	熱多寒少湯
		飮一溲二	熱多寒少湯
	陰血耗竭證	耳聾, 目暗, 脚弱, 腰痛	鹿茸大補湯, 共振黑元丹
		夢泄病	熱多寒少湯鹿茸大補湯, 共振黑元丹

Ⅲ. 考 察

역대 醫家에 관한 東武公의 견해는 '醫原論'에서 알 수 있는데, 病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견해를 인식하게 한 근거가 張仲景의 <傷寒論>이며, 동무공의 體質病證인식의 완성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許俊의 <東醫寶鑑>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무공의 體質病證의 인식에 도움을 준 의서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동무공의 病證 인식에 관한 발전과정을 보면 病證 인식의 초기에는 <傷寒論>이나 <東醫寶鑑>과 같은 기존 의서에서 보이는 病證 인식과 유사한 면을 많이 보이다가 점점 體質病證의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草本卷에서의 病證 인식을 보면 체질에 따라 자신에게 脆弱한 장부의 손상 정도에 따라 건강의 정도를 8단계로 분류하고, 4단계는 건강한 부류, 4단계는 질병의 단계로 나누었다[9]. 질병의 4단계를 동무공은 '外感', '內傷', '牢獄', '危傾'로 분류하였다. 질병의 4단계를 동무공은 '外感', '內傷', '牢獄', '危傾'로 분류하였다. 이 네가지의 질병 분류는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外感과

7). 「東醫壽世保元·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證論」
此證 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而 表局虛薄 不勝寒而 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8) 「東醫壽世保元·太陰人肝受熱裏熱病證論」
蓋 此病 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9). 동의수세보원초본권 B.2.3:"臟部一半命脉實數平分八截, 第一截名曰神仙, 度數言其最高也. 第二截名曰淸朗, 度數言精神淸朗也. 第三截名曰快輕, 度數言一身快輕也. 第四截名曰康寧. 度數言百體康寧也. 第五截名曰外感, 度數言表氣外虧也. 第六截名曰內傷[1], 度數言裏氣內損也. 第七截名曰牢獄, 度數言其病如入獄也. 第八截名曰危傾, 度數言其命遂危境, 命脉之理微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截著而明之, 使難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截亦各有初中終, 度數八截又可分爲二十四截."

內傷은 발병의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 牢獄과 危傾은 질병의 輕重緩急에 따른 분류이다. 이를 보면 아직은 草本卷에서는 病證의 관한 개념은 아직 미완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太陰人藥方'을 보면 처방의 운용에서도 '外感', '內傷', '牢獄', '危傾'의 病證에 따른 처방의 운용이 아니라, <東醫寶鑑>의 '雜病篇'에서 볼 있듯이 각 증상을 위주로 주요 증상이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분류하고 있으며 처방의 구성에서도 '外感', '內傷', '牢獄', '危傾'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처방에서는 甲午本이나 辛丑本에서 제시되는 처방의 母處方을 찾기는 어렵다. 단지 淸心蓮子湯의 母處方으로 생각되는 처방이 있는데, 李[10]는 九味天門冬湯을 淸心蓮子湯의 母處方으로 보고 있다. 이로 辛丑本에는 처방만이 있고 운용예는 보이지 않는 淸心蓮子湯의 운용범위가 '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임을 알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草本卷에서는 뒤의 甲午本이나 辛丑本에 비해 素證이 病證보다 강조되며, 양생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甲午本에 이르면 비교적 病證의 발병기전에서 外感과 內傷의 구별이 病證 인식의 주요한 구분점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취약장부의 손상이 가장 중요한 病證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病證의 명칭이 '外感腦佳頁病', '內觸胃脘病'이라는 명칭을 얻게된다. 辛丑本과는 달리 甲午本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表裏之表裏病의 분류에서 少陽人과 少陰人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太陰人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甲午本			辛丑本		
外感腦雉頂病	表之表病	頭痛, 身疼, 腰痛 등	表病	背項表病證	頭痛身疼腰痛
		長感病			惡寒不發熱
	表之裏病	目疼鼻乾增寒壯熱燥澁		胃脘寒證	食後痞滿 腿脚無力
					泄瀉
		頭面項頰赤腫			咳嗽
		體熱腹滿自利			胸腹痛
					泄瀉十餘次 必發慢驚風
內觸胃脘病	裏之表病	腹痛自利	裏病	燥熱證	陽毒發斑
		食滯痞滿腿脚無力			
		下痢膿血			肝熱熱證 溫病
		腹脹浮腫			燥熱證 手指焦黑瘢瘡病
		有腹痛下痢中風			飮一溲二
	裏之裏病	無腹痛下痢中風		陰血耗竭證	耳聾, 目暗, 脚弱, 腰痛
		夢泄病			夢泄病

이상의 비교를 보면, 甲午本과 辛丑本의 太陰人 病證의 분류를 보면 外感腦頂病의 表之裏病에 해당하는 항목이 辛丑本에 오면 裏病의 燥熱證에 배속이 되고, 內觸胃脘病의 裏之表病에 해당하는 항목이 胃脘寒證에 배속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病證의 배속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甲午本에서

10) 이수경,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는 病證을 外感과 內傷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病證名도 '外感腦雖病'과 '內觸胃脘病'이라는 명칭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에서 해당 증상도 배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념은 東醫寶鑑에서 이어진 것으로 東醫寶鑑의 病證 분류는 크게 外感에 해당하는 病證과 內傷에 해당하는 病證으로 나뉘게 되는데, 外感에 해당하는 病證은 風, 寒, 暑, 濕, 燥, 火와 같이 외부의 六氣에 의해서 이루어진 病證이며, 內傷에 해당하는 病證은 심리적이나 사회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 虛勞,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와 같은 다양한 病證이다. 이런 개념이 甲午本까지는 이어져 '外感腦雖病'에는 기존에 외부적인 寒邪나 瘟疫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식된 증상들이 배속되고, '內觸胃脘病'에 해당하는 病證은 기존의 의서에서 內傷이라는 범주로 인식되던 증상들이 배속된 것으로 사료된다. 처방 운용에서는 病證에 따라 처방은 분류하고 그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개념이 辛丑本에 이르면 변화를 보여서, 病證을 분류함에 있어서 病證 발생의 원인에 따라 病證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반응의 차이에 따른 病證을 분류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즉 太陰人 病證에서는 太陰人 중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던지 개체가 '胃脘衰弱而 表局虛薄 不勝寒而 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이라는 기전으로 반응을 나타나면 이는 '胃脘受寒表寒病證'이 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肝熱大盛 肺燥太枯'이라는 기전으로 개체가 반응을 보이면 이는 '肝受熱裏熱病證 '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체가 보이는 반응을 위주로 病證을 인식함로 인해 病證에서 '表寒病證', '裏熱病證'과 같이 '表證', '裏證', '熱證', '寒證'과 같은 개념이 病證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麻黃發表湯이나 太陰調胃湯과 같이 寒證에 사용되는 처방과 葛根解肌湯, 熱多寒少湯과 같이 熱證에 사용되는 처방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처방의 구성에 있어서도 葛根, 大黃, 黃芩, 藁本과 같이 熱證을 치료하는 처방에 사용되는 약재와 麻黃, 薏苡仁, 蓮子肉과 같이 寒證을 치료하는 처방에 사용하는 약재로 약재의 구분도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판본에 따라 病證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면, 질병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이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외부요소에 대한 각 개체의 반응이라는 體質 病證의 개념이 명확해 진다.

Ⅳ. 結 論

1. 草本卷에서는 病證 인식을 보면 질병을 크게 外感, 內傷, 牢獄, 危傾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처방운용에서도 外感, 內傷, 牢獄, 危傾이 구별되지 않고, 東醫寶鑑식의 각 증상을 위주로 주요 증상이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草本卷에서는 素證이 病證보다 강조되며, 양생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2. 甲午本에서도 病證을 外感과 內傷으로 분류하여 病證名도 '外感腦佳頁病'과 '內觸胃脘病'이라는 명칭을 보이게 된다. 이런 개념에서 '外感腦佳頁病'에는 기존에 외부적인 寒邪나 瘟疫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식된 증상들이 배속되고, '內觸胃脘病'에 해당하는 病證은 기존의 의서에서 內傷이라는 범주로 인식되던 증상들이 배속되었다. 처방운용에서는 病證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3. 辛丑本에서는 病證의 분류에서 발병원인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개체가 나타내는 반응의 차이에 따라 病證을 구별하며, 이로 인해 表寒病證, 裏熱病證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로 인해 寒證에 사용되는 처방이나 약재와 熱證에 사용되는 처방이나 약재의 구분도 엄격하게 이루어져 치료에 응용되었다.

4. 판본에 따라 病證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면 질병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이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개체의 반응 차이라는 體質 病證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1
2. 동의수세보원갑오구본 복원본, 사상체질의학회, 서울, 2001
3.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사상체질의학회, 서울, 2000
4. 허준: 원본동의보감, 남산당, 서울, 1998
5. 宋一炳: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치료의학정신, 사상체질의학회 Vol.13-2, 2001, 사상체질의학회